

2026 대구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포럼

- 대구 사회연대경제의 역사·문화적 뿌리를 찾아 2부 -

1. 추진 목적

- **(대구근현대사적 운동과 사회연대경제의 뿌리)**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운동, 새마을운동 등 대구의 시민참여와 공동체적 운동의 근현대사적 흐름 속에서 대구사회연대경제의 역사적·문화적 뿌리를 찾고 승화시켜 나가는 기회를 마련
- **(역사적·문화적 연대)** 대구의 근현대사적 운동(“대구정신”)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공동체적 활동, 경제적 협동(공익적 이익)을 추구해온 특성에서 오늘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운영원리를 확인하고, 대구정신과 시·공간적 연대를 추진
- **(실천적 학습)** 오늘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와 경제적 협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와 방법론을 모색

2. 추진 내용

- 주 제 : **대구 사회연대경제 역사·문화적 뿌리를 찾아서 2부**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와 활동, 오늘날 사회연대경제의 과제”
- 발 제 : **엄창옥((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 일 시 : **2026년 10월 15일(목) 15:00~17:00**
- 장 소 :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1층 시민커뮤니티실**
(구. 중앙도서관 / 중구 공평로10길 25)
-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 /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접수방법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https://bit.ly/2026대구사회연대경제활성화포럼3차>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네트워크지원팀(070-4788-6131)



3. 추진 일정

시간	구분	내용
14:40~15:00	등록 및 접수	등록 및 네트워킹
15:00~15:10	행사 안내	포럼안내 및 인사말
15:10~16:40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와 활동, 오늘날 사회연대경제의 과제 - 엄창옥((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16:30~17:00	논의	· 라운드 테이블

[참조]

[2부_2026.10.15] 국채보상운동의 호혜·연대 정신과 사회연대경제

1907년 대구에서 발원한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로 발생한 대일 차관 1,300 만원을 국민 스스로 해결하여 국권을 지키고자 한 자발적·호혜적 경제운동입니다. 남성은 담배를 끊고, 여성은 반지와 비녀를 내놓았으며, 상인·지식인·여성 등 계층과 성별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원을 공동의 목적에 연대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사회연대경제의 근본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가치와도 상통합니다.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재화의 나눔, 곧 이익 연대의 경제학'으로 재해석하여, 이 유산이 오늘의 대구 사회연대경제에 어떤 담론적 뿌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부_2026.9.4] 2·28민주운동의 시민 주체성과 경제민주주의

2·28민주운동(1960)은 대구의 학생과 시민이 부정한 권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운동입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에서 2·28민주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민족 시민운동의 전통을 계승해 온 도시입니다. 2·28민주운동의 핵심은 "평범한 시민이 자기 삶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체성에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나눔이나 복지가 아니라 민주적 운영과 참여적 거버넌스를 본질로 합니다. 2·28민주운동의 민주적 지향을 경제 영역으로 이어받는 사회연대경제는, 경제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8민주운동의 시민 주체성과 민주적 저항 정신이 어떻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민주적 운영·참여·자기결정 원리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부] 새마을운동의 자조·협동과 자율적 공동체경제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3대 정신으로 내건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국가주도의 성격이 강했으나 그 실천과정에서 마을 단위의 공동 노동, 공동 이용시설, 주민 총회 등 공동체적 협동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축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자조와 협동의 정신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협력의 가치와 맥을 같이 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출발점은 다르지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자조와 협동 자산을 재해석하고 계승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